

농어촌공사, ‘24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공모 사전설명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7일 40여 곳의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에서 ‘24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공모를 위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는 집단화된 유희농지, 국·공유지 등을 공사에서 매입하여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기반 정비*한 후 청년농업인 등에게 선임대 후 매도, 매입 조건부 임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기반정비 : 부지정비, 도로공사, 용수공급시설, 배수시설, 전기시설 등

‘24년 사업대상지는 지자체별 유희부지 등에 대한 공모를 통해 발굴하여 2개소 이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공사는 올해 예산을 54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개소별 기존 3ha에서 최대 20ha 이내로 면적을 늘리는 등 스마트팜 영농을 원하는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는 올해 사업 추진 현황과 내년도 사업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진행하여 참석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권익현 농지은행처장은 “스마트팜 영농창업을 희망하지만,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에게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한 농지를 공급함으로써 스마트팜 영농기반 확산과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기반마련 및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를 통한 소득증대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담당 부서	농지은행처 농지정책개발부	책임자	부 장	이기봉 (061-338-5731)
		담당자	대 리	여대환 (061-338-5734)

참고

「'24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공모계획 개요

사업 목적

-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집단화된 유휴부지, 국·공유지 등을 매입하여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기반정비 후 청년농업인 등에 공급함으로써 스마트팜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

1 사업 내용

- (부지매입) 지자체 유휴부지 등을 공사에서 협의 매입(필요시 수용)
- (기반조성) 스마트팜 건축이 가능토록 성토 등 부지정비, 도로공사(진입로·단지내도로), 용수공급시설, 배수시설, 전기시설 등
- (농지공급) 단지조성 후 청년농업인 등에게 매도(선임대후매도 등)
 - * '24년) 부지매입, 설계 → '25년) 기반조성 준공 → '26년) 스마트팜 건축

2 공모 내용

- (사업대상지) 지자체별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발굴하여 공모신청
 - * 선정시 우대사항 : 농촌소멸(인구감소)지역,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농업진흥지역내 경지정리 되지 않은 농지 등 저활용농지
- (지원규모) 개소당 최대 20ha 이내(전액 국고지원)
 - * ha당 사업비 : 부지매입비 7억원/ha, 기반조성비 5억원/ha
- (공모절차) 공모접수(10~11월, 6주간) → 예정지조사(11월) → 서류·현장평가(12~'24.1월) → 선정('24.1월 中)
 - * 지자체에서 부지활용·개발계획 등을 포함한 예비계획서 수립 및 공모 참여
 - * 선정개소 : '24년 총사업량 40ha 범위내에서 2개소 이상 선정 예정